

“또 잠길라”...불안에 떨며 집안 물건 정리

광주·전남 재해위험지구 돌아보니

“지자체 관리 한다는데 침수피해 왜 생기나” 불안 극락천 범람 등 매년 악몽...근본 대책 마련 시급

“광주에서 극락천 주변을 재해위험 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데, 해마다 침수피해를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레 묻고 싶습니다. 강물이 범람할 땐 무서워서 통근버스 타기도 겁납니다.”

광주시 광산구 신촌동 극락교 인근 M전기회사에 다니는 김모(여·46)씨는 해마다 장마철만 되면 걱정이 앞선다.

지난해 7월·8월 장마철과 태풍이 불어 닥쳤을 때 자신의 회사에서 직선거리로 20m 떨어진 극락천이 범람하는 것을 목격한 뒤 광산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극락천 범람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마철이 다가온다는 소식에 광주시 광산구 신촌동 신기마을에 사는 박모(여·64)씨는 집안에 있는 물건 정리에 분주하다. 10년 전 수해 피해를 입은 뒤부터 장마 때마다 불안에 떨면서 생긴 버릇이다. 구는 수차례 민원에도 저지대 마을에 들어온 물을 빼낼 수 있는 2개의 펌프관을 설치해줬다.

화순군 도곡면 월곡리에 사는 이모(68)씨도 비만 오면 좌불안석이다. 장마철이 다가오면 아예 외출도 삼간다는 게 이씨의 설명이다. 수년간 농경지 침수피해가 잇따르면서 비가 내리면 눈에 찬 물을 수시로 빼줘야 하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광주·전남의 재해 취약지구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광주·전남에서 붕괴와 침수가 우려되는 재해위험지구는 모두 393곳(광주 15곳·전남 378곳).

전남은 221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재해위험지구 378곳 중 산사태 위험지구 292곳을 제외한 나주 지석천·영광 묘량천·목포 백련천 등 86곳 가운데 19곳(22.09%)에 대한 제방축제 및 배수펌프장 추가 설치 등 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다.

광주·전남 재해위험지구 현황



●**광주 15곳**
서구 7·북구 1·광산구 7곳
수년간 수백억 들여 정비 불구
해마다 침수피해 되풀이

●**전남 378곳**
산사태 위험지구 292곳 제외
86곳 중 19곳 만 개선사업 진행
예산 없어 67곳은 엄두도 못내

하지만 나머지 67곳은 지난해 태풍 등 피해로 시설 보수 및 개선이 시급한데도, 예산 부족 등으로 아예 공사조차 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산사태 위험지구 292곳에 대한 산사태 취약지역 거주자 연례체계 정비와 산사태 예방 및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어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는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 및 집중호우로 산사태 6.4ha와 가로수 1만4000그루가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광주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13일 현재 광주지역에서 붕괴와 침수가 우려되는 재해위험지구는 ▲서구 7곳(양동북개상가 하부 주차장 등) ▲북구 1곳(광천1교 하부도로) ▲광산구 7곳(광산대교 하부도로 등) 등 모두 15곳이다.



지난 12일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배수로 펌프시설(위)과 월곡동 풍영정 천변에 설치된 배수로. 강 바닥과 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 시설들이 제구실을 못하면서 장마철이면 천변의 물이 차도·보행로를 덮치는 등 침수피해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광주시는 수년간 사업비 수백억원을 들여 이들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벌이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주변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주민들은 해마다 침수피해가 계속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산림청에 의해,

산사태 위험지구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예방대책을 수립,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교육부 “전남대병원장 후보 선출 적법”

“재적 과반수와 관계없다” 회신 이사회 18일 회의...대응 주목

교육부가 전남대병원 신임 원장 후보 선출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전남대병원 이사회의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전남대 병원장 임용후보자 추천 이사회 결의에 관한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이사회 결의가 적법했다”고 회신했다.

교육부는 논란이 된 의결정족수와 관련, 재적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는 않았더라도 2차 투표에 걸쳐 1, 2순위를 임명 후보자로 선정했고 참석 이사 9인 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다.

전남대병원 이사회는 지난 2월 25일 윤택립 빚고를 전남대병원장을 본원의 차기 병원장 1순위 후보로 선출했으나 의결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으며 추천을 미뤘었다. 이 과정에서 전임 병원장의 임기가 끝나면서 3월 27일부터 병원장은 직무대행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교육부는 후보 선임 투표는 순위는 결정하는 만큼 재적 과반수와 관계없다는 판단이지만 일부 이사는 재적 과반수 미충족은 효력이 없다는 입장여서, 향후 추천 작업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사회는 오는 18일 예정된 회의에서 윤택립 원장의 전문 분야인 첨단관절 치료기술 체계화 사업 회계 집행과 명 후보자로 선정했고 참석 이사 9인 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병역 대체근무 ‘경비교도대’ 사라진다

법무부, 설치법 폐지 결정

병역 대상 중 차출해 교정시설 경비 업무를 맡기는 대체근무 제도인 ‘경비교도대’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다. 제5공화국 시절인 1981년 처음 도입된 지 33년만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방부가 병역지원 감소 등의 이유로 2007년 교도대를 비롯한 대체복무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경비교도대는 애초 경비임무와 북한 무장공비 등의 침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경비초소나 감

시대에 배치돼 시설을 방호하고, 경비지역 내 탈출수로 의심되는 사람 등을 검문하는가 하면 전사·사면 등 유사시에 는 무기를 갖추고 작전에 참여하는 임무를 맡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대원들은 훈련소에 입소한 현역 복무대상 중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경비교도대원으로 강제 차출돼 일부에서 불만이 제기돼왔다.

한때 구타를 비롯한 선임병의 가혹행위가 만연하는 등 전투경찰과 함께 근무 환경이 열악한 복무 형태로 꼽혔기 때문이다. 자살로 인한 순직자 인정 사례도 많다.

법무부는 올해 안으로 국회에 교도대 설치법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유공자 예우나 보상 절차에 필요한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기아차 광주공장 직원

하청업체 화물차 치어 숨져

지난 12일 오후 5시4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기아차 광주1공장 서문 입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공장으로 들어서던 기아차 광주공장 직원 공모(31)씨가 하청업체 직원 김모(49)씨가 몰던 5t 화물차에 치어 숨졌다.

숨진 공사는 근무 중 쉬는 시간에 불을 보러 자신의 집에 갔다가 회사로 들어가던 중이었으며, 김씨는 광주1공장에서 광주2공장으로 생산된 승용차를 실으러 가던 중이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김씨가 광주1공장 입구를 빠져나가던 중 공사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형호기자 khh@

영산강 현장 점검 수자원공사 사장, 수질문제 없다는데...

“큰빛이끼벌레 볼 수 없었다...4대강 사업 탓 아니다” 주장 환경운동연합 “정확한 조사도 않고 4대강 사업 두둔하나”

수자원공사가 영산강 수질 문제에 대해 제대로된 조사 없이 “4대강과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자, 지역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3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따

르면 최계은 수자원공사 사장은 지난 11일 영산강 현장 점검 자리에서 “큰빛이끼벌레는 4대강 사업으로 생긴 것이 아니며, 죽산보 등 영산강에서 찾아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그러나 성명서를 통해 “큰빛이끼벌레가 보 건설 이전에는 없었다”면서 “녹조, 수질악화, 농지침수, 큰빛이끼벌레 창궐, 생물종 감소, 생태계 교란종 급증 등 영산강에서 나타난 환경문제는 모두 4대강 사업이 그 원인”이라고 수공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최치원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영산강 수질을 관리해야 할 수자원공사

가 정확한 수질 조사나 원인 규명은 하지 않고 4대강 사업을 두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민·관 합동으로 전문가 그룹을 꾸려 4대강 전반에 대한 수질 분석과 사업성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8일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와 언론이 영산강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광주일보 9일자 6면 참조>, 승촌보 주변에 녹조가 광범위하게 관찰됐으며 강 바닥에서 퍼 울린 흙은 시커먼 점성 물질로 확인돼 영산강 오염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신축원룸(용봉지구) 신축원룸(전대2분)

전대 상대 5분 르까프 매장 뒀 용봉지구 미래도 APT코너

룸21개

1층상가 2칸 4층 주택 옥탑 1개

월수익 900만 (1년 수익 1억1천)

매가 11억8천 (보2억 용3억)

엘리베이터완비, 입주 90%

정남향, 코너 최고위치

신축 4층 전대 정문 2분 전대후분 2분

룸12개 1층 점포2개 4층 주택

월수익 500만 매가 6억7천 (보4천 용1억2천)

▶신축 4층 원룸 매매 룸21개(1층 상가, 룸 18개) 월수 800 매가 8억

▶신축 4층 원룸 매매 룸18개(4층 고급주택) 월수 800 매가 12억

▶전대 예술대 룸 10개 매가 4억 2천

▶원룸(3억~20억) 다양 있습니다.

참신한 010-6670-9800 / 062)952-5584

(주)대신경매 경매의 모든것을 가족처럼 편안하게 컨설팅 합니다. 건축분야 · 신축 · 설계 · 리모델링 무료 컨설팅 해드립니다.

근린시설 ▶ 수익성 물건

- 서구 화정동 근린시설(대 1094㎡ 건4489㎡) 감정가 41억6, 최저28억화정동 금호월드 옆
- 동구 수기동 근린시설(대330㎡ 건1283㎡) 감정가11억7, 최저5억2 동구 수기동 시내중심지
- 동구 대인동 근린시설(대780㎡ 건1992㎡) 감정가124억7 최저24억, 8차선 도로점 본사사옥
- 북구 매곡동 근린시설(대1735㎡ 건23.3㎡) 감정가30억 최저21억, 대항마트 도시형 주택
- 북구 신안동 근린시설(대951㎡ 건2652㎡) 감정가26억, 최저11억 주택적합 본사사옥
- 무안군 해제 근린시설(대578㎡ 건308㎡) 감정가11억3, 최저3억2, 투자적합
- 순천시 장천동 근린시설(대423㎡ 건738㎡) 감정가12억, 최저6억9, 순천티미널 옆
- 화순군 능주 근린시설(대879㎡ 건1447㎡) 감정가10억, 최저4억6, 투자적합
- 영광군 법성 근린시설(대3658㎡ 건4309㎡) 감정가34억, 최저9억1, 대항사우나
- 광양시 봉강 근린시설(대31976㎡ 건792㎡) 감정가40억, 최저18억, 전월지 골포장
- 목포시 용영동 근린시설(대221㎡ 건866㎡) 감정가6억6, 최저2억3, 사가적합지
- 장성 설계 근린시설(대1068㎡ 건631㎡) 감정가2억5, 최저1억7, 전원 사가지

근린주택 ▶ 수익성 물건

- 북구 신안동 근린주택(대138㎡, 건202㎡) 감정 2억4 최저 2억4
- 북구 중흥동 근린주택(대156㎡, 건97㎡) 감정 1억2 최저 8억2 코너 주택 상가
- 북구 유동 근린주택(대229㎡, 건608㎡) 감정 3억8 최저 2억6
- 서구 능성동 근린주택(대398㎡, 건328㎡) 감정 7억2 최저 5억
- 동구 산수동 근린주택(대179㎡, 건118㎡) 감정 1억3 최저 9천
- 북구 오치동 근린주택(대127㎡, 건148㎡) 감정 1억 최저 7억4

오피스텔 및 특수물건

- 서구 차평동 상무지구 골드오피스텔(대428㎡, 건1907㎡) 감정 3억5천 최저 1억6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대205㎡, 건75㎡) 감정 1억 최저 4천5백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대32.8㎡, 건119.3㎡) 감정 1억4천3 최저 6천4
- 북구 신안제일오피스텔(대5.81㎡, 건21.7㎡) 감정 3천9백 최저2천7백9십

건축시공 설계부터, 임대 매매 리모델링까지 책임지고 무료상담해드립니다.

경매 함께 가족처럼 같이 공동하실 분

상가,대지,근린시설 주택,APT,전문취급함

010-6832-9700 / 062)512-8080

상가매매(7층사우나) 상가매매(수익성상가)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북구 우산동 구호전 앞 무등 장애식당 사이 7층 건물 사우나 건물

대지 96평 건평 570평 월수익 800만

주인직접 운영시 1,100만 매가 11억 (보2억 용4억5)

첨단상가건물 8층

북구 오희동 삼성전자 앞 1층상가 200평 2~8층 룸58개 월수익 2500만 매가 35억

최고급 오피스텔 룸 완비

주)수아 010-6832-9700 / 062)512-8080

▶수원지구 상가매매3층 한솔빌딩(4층중 3층) 85평 (신한은행 두시,모아엘가A 상가임) 매가13억5천(보3천 용2억5) (월수익 200만, 1년 2400만)

▶수원지구 상가 매매 3층 (엘스빌딩)(4층중 3층) 62평 (롯데마트 옆 서해남공단 쪽) 매가 2억5천(보2천 월 120 용9천)

▶첨단지구 상가매매2층 (대삼오션스파)(8층중 2층) 62평(부영APT임) 매가1억7천(보1천 월70 용9천)

▶나주시 삼영동 2층 확원건물매매 매가1억9천 (토지205평 건135평 용1억2천)

▶북구 신안동 2층 상가주택매매 매가 4억2천 (신안사거리 무등경기장 쪽)

▶쌍촌동원룸형 오피스텔매매(2층) 윤석영 1번 송구 2번(월수리 전세제품 신규교체 임대료로,주인거주가능) ①11평 매가3천4백(보200 월27 용1천) ②12평 매가3천5백(보200 월30 용1천)

▶상무지구 오피스텔매매(3층 정원) (한국은행 앞 상무지구 현대 APT임) 30평 매가 1억8천(월1천) → 1억5천(용 6천가능)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매매48평 (사무실민트(원) 무료제공) 매가 1억5천(월1천) → 1억2천(월1천) (수비없음)

▶상무지구 오피스텔 매매(6층) ①15평(수립)6층롯데마트 동쪽인근 위치 매매가격 8억 ②10평(수립6층) 임대보증금 5백-38만원 매매가 5천만원

목포시 용해동APT 단지역 전원주택

대지 310평 주택 2채 50평 무화과 나무 식재됨 매가 3억

나주 삼영동(2층 건물)

나주 영산초교 앞 대지 130평 주택 2층 200평 매가 1억9천

여수 아파트매매

35평형(여수 남산동) 매매가격 1억3천